



박진연의 문화카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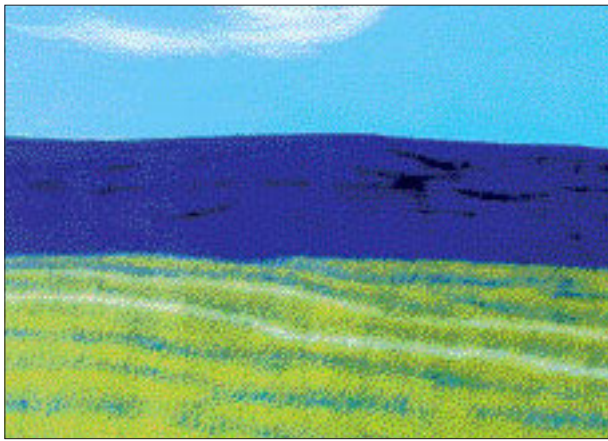
미래의 전시기획자 꿈꾼다

시민참여프로그램 행사 지원 인턴십
자원봉사 등 애정...비엔날레 열성 팬



광주비엔날레 인턴 과정인 '열풍메이커'에 참여하고 있는 3명의 예비 미술기획자들. 왼쪽부터 김지연, 이하나, 이호석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5 광주일보
제17543호 2006년 9월 4일 월요일



'Nostalgia'

현대인들 갈망하는 이상향

한국화가 강일호 개인전 6일까지 자미갤러리

한국화가 강일호씨가 '노스텔지아'를 주제로 6일까지 자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강씨는 이번 전시에서 황토의 자연을 3색으로 표현한 노스텔지아 연작을 통해 현대인들이 잃은 시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상향의 세계를 그렸다.

노스텔지아 연작은 푸른 초원과 산, 하늘을 3면으로 분할, 3가지 색으로 계절의 변화를 형상화함으로써 관람객을 포근한 향수의 세계로 이끈다.

'위기의 남자-개꿈', '하루' 등 작품은 현실의 중압감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뇌를 형상화했다.

강씨는 이 전시에 이어 일본 교토의 동시대 갤러리에서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순회전을 가질 예정이다.

강씨는 전남대 예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광주시미술대전과 무등미술대전에서 특선했으며, 예맥회, 전통과 형상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CNS 금관5중주단 화요예술무대

5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CNS 금관5중주단이 화요예술무대에 선다. 5일 오후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호른(장현웅), 튜바(김세훈), 트럼본(서용일), 트럼펫(송형진·추선호)으로 구성된 CNS 금관5중주단은 이날 공연에서 헨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 중 '시바 여왕의 도착', 푸차니의 오페라 '라 보엠' 2막 중 '뮤제타의 왈츠',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모음곡, 피아졸라의 '방각' 아일랜드 민요 '아 북동아', 영화 '플레툰'의 삽입곡 '아다지오' 등을 연주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자원봉사를 통해 문화기획자의 꿈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제6회 광주비엔날레(9월8일~11월11일) 개막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시민 참여프로그램인 '열풍메이커'에서 행사업무 보조·지원할 인턴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열풍메이커'들이 주인공이다.

김지연(여·25), 이하나(여·23·조선대 미대 3년), 이호석(24·광운대 전자공학부 휴학)씨는 20명의 열풍메이커 가운데 이색 경력과 남다른 열정 동안 시민 참여프로그램인 '열풍메이커'를 지원했다.

김씨는 비엔날레 업무를 맡기 위해 현재 1일 4시간씩 사전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야간에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외국어 번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광주를 세계에 알릴 비엔날레에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해서 지원했다"며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컨벤션 기획자의 길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하나는 광주비엔날레 마니아가로 통한다. 지난 7월 비엔날레 도슨트 공모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뒤 재수(?) 끝에 열풍메이커 공채에 합격해 비엔날레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2004년 광주비엔날레를 보기 위해 전기간 입장권을 구입, 하루에도 2~3차례씩 전시장을 찾았던 열혈팬이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그는 전공을 살려 의재미술관과 광주 MBC수목대전 도슨트 등 주로 도슨트로서 봉사활동에 참가해온 베테랑이기도 하다.

무보수로 비엔날레 사무국 일손을 거들겠다고 자청한 이씨는 아마추어지만 아무진 일처리로 비엔날레 직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씨는 "관람객들이 전시를 물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열풍메이커 가운데 '청일점'인 이호석씨는 1회 대회부터 5회까지 비엔날레 행사를 관람하면서 비엔날레 참여의 꿈을 키워온 비엔날레의 숨은 팬이다.

대학교 방송반 동아리에서 영상보도부 기자와 라디오 방송 PD로 활동

하고 있다.

그는 "관공을 살려 의재미술관과 광주 MBC수목대전 도슨트 등 주로 도슨트로서 봉사활동에 참가해온 베테랑이기도 하다."

무보수로 비엔날레 사무국 일손을 거들겠다고 자청한 이씨는 아마추어지만 아무진 일처리로 비엔날레 직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씨는 "관람객들이 전시를 물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열풍메이커 가운데 '청일점'인 이호석씨는 1회 대회부터 5회까지 비엔날레 행사를 관람하면서 비엔날레 참여의 꿈을 키워온 비엔날레의 숨은 팬이다.

대학교 방송반 동아리에서 영상보도부 기자와 라디오 방송 PD로 활동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열풍메이커 가운데 '청일점'인 이호석씨는 1회 대회부터 5회까지 비엔날레 행사를 관람하면서 비엔날레 참여의 꿈을 키워온 비엔날레의 숨은 팬이다.

대학교 방송반 동아리에서 영상보도부 기자와 라디오 방송 PD로 활동

한 이씨는 함께 동료들이 일하는 모습과 비엔날레 행사의 전 과정을 캡처하여 담는 게 소망이다.

이씨는 "관객에서 벗어나 행사를 주도하는 참가자가 되고 싶은 작은 꿈을 이뤘다"며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알찬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되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다짐했다.

대중과 방송반 동아리에서 영상보도부 기자와 라디오 방송 PD로 활동

광주공연 갖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데뷔 20년 기념 무대...한국적 서정 담아낼 터"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앨범 데뷔 20주년을 맞아 광주공연(5일 오후8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선다. 공연중비에 한창인 유키 구라모토와 e-메일 인터뷰했다.

-20주년 기념이라는 뜻깊은 공연의 첫 무대가 광주 지역인데.

▲유서깊은 도시 광주에서 연주를 하게 돼 참 기쁘다. 앨범 데뷔는 20주년이지만 음악계에 들어온 것은 35년이 됐다. 오랜 기간이 지났다가보다는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내가 추구하는 서정적인 음악과 한국인들이 잘 어울려서 그런 것 같다. 한국인들은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나라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내 음악이 더 사랑받는 것 같다.

-소프라노 조수미씨를 위한 협정곡을 만들고 연주했는데.

▲이번에 국제 무대 데뷔 20주년을 맞는 조수미씨를 위해 새로운 곡을 작곡해 줄 수 있어 뜻깊었다. 특히 연주가 아닌 노래라는 점에서 한국어 가사를 사용해서 인지 내 자신도 한국과 더욱 친숙함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됐다.

(이 노래는 '주몽' 삽입곡으로 사용된다.)

-응용물리학을 전공했는데 가 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없나.

▲미련 없다. 사실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음악, 응용 물리 둘 다 좋아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물리학을 선택했다. 다만 대학에 들어가서는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음악 일이었다.

-대중상 시상식에서 연주도 했는데 한국에서 작업할 계획은 없나.

▲사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함께 작업하지는 제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인연이 닿지 않아까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 작업하면 좋을 것 같다.

▲이번 공연에 대해 소개해 달라.

피아노 솔로, 플루트 첼로와 함께 하는 트리오, 현악파트와 함께 하는 연주 등 3가지 연주 스타일로 꾸렸다.

-20년 후의 계획은 어떤 건가.

▲20년 후? 일단은 건강해야겠다. 후진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쪽 일도 아주 중요하니까.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p>광주동화공연중계시 TEL 061-276-2226-7 061-276-2244</p>	<p>공장, 공장부지 물류창고, 임야</p>	<p>다양한 불건 다양보유 토지 투자 상담 전문</p>	<p>수표 TEL 652-7544</p>	<p>SONY 모든것</p>
<p>부동산 전문</p>	<p>부동산 전문</p>	<p>부동산 전문</p>	<p>부동산 전문</p>	<p>부동산 전문</p>
<p>부동산 전문</p>	<p>부동산 전문</p>	<p>부동산 전문</p>	<p>부동산 전문</p>	<p>부동산 전문</p>
<p>부동산 전문</p>	<p>부동산 전문</p>	<p>부동산 전문</p>	<p>부동산 전문</p>	<p>부동산 전문</p>